

# “가뭄에 물 아끼라더니”... 광주 수돗물 또 섰다

지하철 2호선 공사 수도관 파열 3시간 동안 수돗물 180톤 누수 주말 정수장 고장 5만톤 낭비도 “시민엔 물 절약 강조하고” 분통市 “최송...재발방지대책 수립”

가뭄 극복을 위해 시민에게 물 절약을 거듭 당부하던 광주시가 연속으로 대량의 물 낭비를 초래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덕남정수장 밸브 고장으로 5만7000톤의 물이 그대로 땅에 버려진 지 이틀 만에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다.

14일 광주시와 광주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인근 지하철 2호선 공사(1단계 4공구) 현장에서 50mm 상수도관이 파손됐다. 땅을 파던 굴착기가 상수도관 연결부위를 건드리면서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수도본부는 곧바로 20여 명의 직원을 현장 투입해 긴급 복구 작업을 시행했다. 복구는 파손 6시간여 만인 오후 3시께 완료됐다.

이 사고로 단수 조치가 이뤄진 정오까지 파손 부위에서 수돗물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상수도본부는 시간당 60톤의 물이 누수된 것으로 파악했다.

단수 조치가 되기까지 3시간여 동안 버려진 수돗물은 약 180톤에 달한 셈이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수압 변화 등으로 주월동, 진월동 2800세대에 흐린 물이



14일 오전 8시45분께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인근 지하철 2호선 공사(1단계 4공구) 현장에서 50mm 상수도관이 파손됐다. 복구 작업은 6시간 만인 오후 3시께 완료됐으며, 이 사고로 인해 180톤에 달하는 물이 누수됐다.

나올 수도 있어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비상급수체계를 흐린 물 이토 작업 체계를 갖춘 상태다”고 말했다.

다행히 오후 5시 기준 현재까지 흐린 물이 발생한 세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민들은 쉽게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남구 덕남정수장 유출

밸브 고장으로 갑작스런 단수와 흐린 물 상황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2일 광주시 식수원인 주암댐에서 취수된 물을 정화해 배수지로 보내는 덕남정수장의 유출밸브가 고장 나 5만7000톤 가량의 물이 낭비됐다. 이에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광주 서구

·남구 전역과 북구·광산구 일부 지역에 단수 조치가 이뤄졌다. 당시 시민들은 주말 약속을 취소하고 장사를 접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더욱이 밸브 고장 원인이 광주시의 관리 소홀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노후화로 인한 밸

브 배어링과 축 이탈’이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광주시가 미리 시설을 점검·진단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분노했다.

특히 광주시가 가뭄 장기화를 이유로 ‘물 절약’ 실천을 수개월 호소한 바 있어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크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동북·주암댐의 저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졌다며 ‘생활 속 20% 물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날 기준 광주 주요 식수원인 동북댐의 저수율은 23.25%, 주암댐은 28.68%다.

저수율이 회복되지 않고 가뭄이 지속될 경우 광주시는 오는 5월께 제한 급수를 단행할 예정이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강모(47)씨는 “매일 재난안전문자로 저수율을 알려며 시민한테 ‘물 절약’을 압박하더니 정작 물 낭비는 광주시가 하고 있다”며 “단 이틀 만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해 실망이 크다. 광주시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 더 이상 귀한 물을 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덕남정수장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 현장 점검·안전을 강화하고, 정수장 시설물 전수 조사도 계획 중이다”면서 “미리 사고를 막지 못해 물을 낭비했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극심한 가뭄 상황에서 일어난 안 될 일이 발생해 시민들께 죄송하다.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겠다”고 전했다.

글·사진=강주비 기자 jub.kang@jnilbo.com

## 광주시의회 ‘단수 사태’에 내일 원포인트 임시회

환경복지위, 현장 방문 긴급 현안 질의 예정

광주시의회가 지난 12일 발생한 광주 지역 덕남정수장 단수 사태와 관련,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원인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6일 오전 9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단수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을 할 예정이다.

상수도사업본부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사고 발생지인 덕남정수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사고

발생 경위, 조치 경과, 피해 사항, 향후 보상 계획 등을 들었다.

소속 의원들은 “정수장 밸브가 내구기한을 18년이나 넘겼음에도 교체하지 않고 점검도 육안 점검과 외관 조사만 시행하는 등 상수도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다”며 부실 행정을 질타했

다.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 위기를 맞은 광주시에서 수돗물 5만7000톤이 도로에 버려지는 사고인 점을 강조하며 수돗물 사고 매뉴얼을 정비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단수와 흐린 물로 피해를 본 광산구와 남구 등 2만8000여 세대에 대한 피해 조사와 철저한 보상을 주문했다.

원포인트 본회의의 시정질문에서는 단수

사고 원인과 대책, 시설 점검 부실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환경복지위원회는 기술 진단 용역 결과와 상수도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조석호환경복지위원장은 “수돗물은 시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부분이다”며 “상수도 시설을 전체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휴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sup>2</sup>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 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sup>3</sup>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등록번호 10-2017-0000000000000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http://www.dreamchemicalkorea.com)